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2. 3.(월)

최상목 권한대행, 수출 모멘텀 확대 위해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 개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관계부처 장관들과 수출현장 애로 청취
- 역대 최대 수출금융 360조원 공급 등 수출 모멘텀 확대 위해 적극 지원 약속
- 이번달 수출전략회의 재개 및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마련 계획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월)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 오찬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5.2.3.(월) 12:00~13:00 /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

▸ 참석자: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기업) ㈜엘앤에프 대표, ㈜케이조선 대표이사,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대모엔지니어링㈜ 사장, 코디아산업㈜ 대표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25년 1월 수출이 장기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줄었으나, 일평균 수출은 증가하였고 설날이 포함된 1월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출기조와 조업일수 등을 감안하면 2월 수출은 플러스로 반등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 '25년 1월 수출(억불, 전년비) : (전체) 491.2 (△10.3%) (일평균) 24.6 (+7.7%)

** 역대 1월 수출(억불) : ('20^{설포함})431 ('21)480 ('22)555 ('23^{설포함})463 ('24)547 ('25^{설포함})491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새로운 통상환경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환경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9조원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해외전시회 등 수출바우처(2,290억원), 원전·방산·K-컨텐츠 정책펀드(1,000억원) 등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①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②조선업 금융지원 및 RG 한도 상향, ③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주요 산업별 지원 계획과 해외전시회·수출바우처 등 수출지원 확대 계획을 답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美 신정부의 캐·맥·중 대상 관세조치(2.1일 발표) 및 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행정 조치 관련 미측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업계와 함께 대응전략을 점검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총력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적극 협업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책임자	팀 장	이명진 (02-6000-5785)
		담당자	사무관	김지수 (jsarah13@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서두원 (sdw0206@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규 (044-204-7500)
		담당자	사무관	송승현 (nadaboy@korea.kr)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박진우 (parkwlsdn@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